

[분청사기]란 무엇일까요?

분청사기는 청자의 흙으로 만든 도자기에
하얀 흙물로 분장시켜 구워낸 도자기입니다.
“분장회청사기”의 줄임말이기도 합니다.

지금으로부터 600여년 전
고려 청자에서 조선 백자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등장하여
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어요.



학교 _____
학년 _____
이름 _____

분청사기를 장식하는 다양한 방법

분청사기에는 상감/인화/조화/박지/철화 기법과 같은 다양한 장식 기법이 사용
되었어요. 아래 사진에 알맞은 기법을 찾아 나머지를 연결해 보세요.



철화 기법은

- 붉은 색이 나는 철화 안료로
그림을 그려 장식하는
방법이에요.



박지 기법은

- 하얀 흙을 바른 그릇에 무늬를
새긴 다음 배경이 되는 부분을
긁어내는 방법이에요.



인화 기법은

- 다양한 문양의 도장을 찍은
도자기에 흰색의 흙을 채우는
방법이에요.



조화 기법은

- 도자기에 하얀 흙을 바른 후
조각칼로 무늬를 새기는
방법이에요.

힌트!!

1실에서 찾아보세요~!!

글씨가 적혀있는 분청사기

2실에 전시된 인화분청사기는
장흥고, 내섬시, 내자시, 경승부와 같은
관청에서 사용되었어요.
글자를 새기고 그 주변엔 다양한 문양의
도장으로 도자기 가득 장식을 했습니다.



<분청사기 인화문 '진주장흥고'명 발>

위의 도자기에서 “진주장흥고”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?

‘진주’는 분청사기를 (제작, 사용) 한 지역이고,
‘장흥고’는 분청사기를 (제작, 사용) 한 관청 이름이에요.

분청사기에 적힌 관청의 이름은 무엇이 있을까요?
아래의 빈칸을 완성해보세요.

- 는 외국사절을 대접하는 일을 주로 담당했던 관청
- 는 임금의 첫째아들인 원자元子를 교육하던 관청
- 는 궁궐에 바치는 토산품, 술과 안주 등을 담당했던 관청

분청사기를 만들던 장인들은 그릇에 글씨를 왜! 새겼을까요?

힌트!! 2실에서 찾아보세요~!!

분청사기에 피어난 모란꽃

모란꽃은 예부터 부귀와 풍요를 상징하는 꽃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어요.
분청사기에서도 다양한 기법의 모란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.



아래의 분청사기에 모란꽃을 표현한
다양한 기법을 찾아서 빈칸을 완성해보세요.



분 청 사 기 모 란 문 병

검붉은색의 안료로 모란꽃을 그렸어요.
이 기법으로 장식된 도자기는 주로
충청도 지역 가마터에서 발굴되고 있습니다.

이 편병은 2가지 기법을 사용하여
장식했어요. 먼저 조각칼을 이용하여
무늬를 새긴 후, 문양 밖의 바탕을
긁어 내어 문양을 돋보이게 만들었어요.
이 기법은 전라도 지역 도자기 장인들이
자주 사용했습니다.



분 청 사 기 모 란 당 초 문 편 병

힌트!! 3실에서 찾아보세요~!!